

대학생의 수화 인식도 조사 연구

김 경 진 (한국재활복지대학 수화통역과)

허 일 (한국재활복지대학 수화통역과)

〈요 약〉

이 연구는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 수단인 수화에 대하여 대학생들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청각장애 학생들의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서울시내에 재학중인 대학생 2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대학생의 수화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대학생들은 대부분 청각장애인을 자세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수화는 아름다운 언어로 느끼고 있으나 수화에 대한 전체적인 관심은 부족하였다. 수화를 배우거나 앞으로 배울 의향이 있으나 청각장애인들을 만나기가 어렵고 또한 수화를 사용할 기회가 없어 배우도 아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각장애인을 보면 불쌍하고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들을 이해하고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방송매체를 통한 수화 보급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청각장애 학생들의 대학생활과 학습을 위하여 수화통역이나 속기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I. 서 론

1. 연구의 의의

언어는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전달 기능을 가진 음성기호체계다. 언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전달기능이다.

인간의 언어활동은 화자와 청자가 말을 주고받는 행위이다. 어떤 화자가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언어기호로 바꾼다. 한편 듣는 상대방인 청자는 음성으로 전달된 언어기호를 귀로 들어 해독하며 내용을 이해한다(이철수, 김준기, 2000). 청각장애인들은 언어의 전달 기능으로 수화를 사용하고 있으며, 수화는 그들만의 언어문화를 형성하여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또한 청각장애인에 있어 수화를 통한 의사소통은 자아실현을 위한 중심적인 언어일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언어이다. 청각장애는 실로 다양하며 수화가 청각장애를 대표하는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언어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이들에게 언어는 생활과 문화를 공유하고 의사를 상호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며, 상호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방법이다.

청각장애 학생들은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어휘 습득을 하지 못하여 글의 이해나 표현,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김경진, 2002).

따라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개인의 언어능력이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 하려는 양자의 관계를 개선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 기능적인 언어를 길러내는 것이다.

청각장애 학생이 학교 수업이나 대학 생활에서 제대로 적응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려면 최성규(1999)는 의도적인 수화학습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아직까지 청각장애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김헬레나(2000)는 청각장애 학생이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 학업상의 어려움과 학습기자재의 부족이나 이용상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 정정진(2003)은 수화통역서비스와 학습보조 자료(수업보조 자료), 좌석배치에 대한 배려를 요구하였다. 또한 윤점룡(2002)은 장애학생들이 대학 내에서 강의를 수강하면서 필요한 학습기자재나 교재의 디지털화, 수화통역, 대필 등을 지원해 주지 않아 원래보다 낮은 학점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청각장애 학생들이 대학에서 장애인으로서 수학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수화통역사나 속기사 등의 학습지원 인력을 제때에 지원하지 않아 장애학생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청각장애 학생들의 공통된 애로점이다. 이는 특별전형의 확대로 대학 진학의 문호는 넓어지고 또한 입학생도 늘어났지만 대학들은 아직까지 장애인을 위한 준비는 부족한 실정이다.

현장에서 통합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시간, 훈련과 교육, 인적자원의 구성, 자료 준비와 구성, 학급의 규모, 그리고 장애정도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Putman,

1998). 이는 대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적 상황에서 청각장애 학생들을 위하여 농문화를 수용하고 청각장애 학생의 모국어로서의 수화를 인정하는 것이 학교에서 교육적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이러한 바탕위에 수화의 사용은 이중언어, 이중문화 접근의 이론을 수용함으로써 청각장애 학생의 자아실현과 학업 성취도 및 언어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는 현행 특수학교 7차 교육과정의 취지에도 부합된다(이규식 등 3인, 2000).

또한 청각장애 학생의 농문화 접근 태도와 언어 선호도는 성장 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청각장애 학생은 성장과 더불어 정체성이 형성되면 농문화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화 발달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Tompkins, 2000; 최성규, 2000, 1999; Strong, 1995; Simon, 1994).

한편 수화를 이해하지 못한 건청 학생들은 청각장애 학생에 대하여 청력에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 이해하였지만 사회 병리적 관점은 청각장애인의 청력 손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국어로 사용하는 수화에 대한 건청인의 언어적 이해 부족을 문제 삼는다(Sacks, 1988; Erting, 1982)고 하였으며, 청각장애 학생의 주관적 특성인 그들의 일차언어와 농문화를 인정하는 것으로의 전환을 가져왔다(Lytle & Rovins, 1997).

이러한 사회적 관점에 따라 건청 학생들은 수화를 이해하고 있다. Stokoe(1960)는 세 가지 측면에서 수화는 음성 언어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며 하나의 독립된 언어라고 하였다. 그 첫째는 사용하는 집단내의 구성원들에 의하여 시간이 흐름에 따라 수화가 발달한다는 것이고, 둘째, 수화에 일찍 노출된 청각장애 유아들은 일반적인 언어 획득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과 셋째, 수화에는 독특한 언어 구조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건청 학생은 청각을 통하여 모국어가 습득되지만 청각장애 학생은 시각을 통하여 수화를 모국어로 습득하는 특징을 지닌다. 이런 측면에서 수화는 농자 사회에서 사용하는 비음성 언어로서 생각이나 감정을 손의 운동으로 표현하는 시각, 운동 체계이다. 이중 언어 접근에 입각하여 청각장애 학생의 일차언어로서 수화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때 자연수화는 보다 농자 중심의 의사소통 양식이라 할 수 있으므로 농자 중심의 사회 문화적 배경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분석이 요구된다(Stone, 1994; 석동일, 1989).

Strong과 Prinz(1997)는 청각장애 학생들의 음성 언어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수화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첫째, 수화는 청각장애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진정한 자연적 언어이다. 둘째, 청각장애 학생들은 보통 예측할 수 있는 방법으로 습득한 수화를 표현한다. 셋째, 조기에 수화를 표현하지 않거나 거의 습득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조기 단계에 수화를 표

현하는 아동들이 유리하다. 넷째, 유창한 수화능력을 가진 학생은 읽기, 쓰기, 능력이 우수하다고 하였다.

수화에 대한 성인 청각장애인의 인식에서 수화의 역할이 음성 못지 않게 중요하게 인식한다고 하였다(안태희, 1998). 한편 청각장애 학생은 모국어인 수화뿐만 아니라 그들의 독특한 양식인 농문화에 대한 건청인의 이해를 요구한다(Strong, 1995). 청각장애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로부터 수용되고 인정받으려면 그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이나 규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김경진, 2001). 또한 최성규(1999)는 청각장애 학생의 권리와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건청 사회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대학 생활을 함에 있어서 청각장애 학생들은 모든 생활에서 의사소통 수단으로 수화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청각장애 문제의 근본적인 과제는 의사소통 문제이고 이것이 청각장애의 특징이며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청각장애인은 수화·구화·필담·토털커뮤니케이션 등을 의사소통 수단으로 하고 있으나 건청인과의 대화에서 원활하고 정확한 의사 전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청각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 수단으로 삼고 있는 수화 문제를 통하여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건청 학생들은 수화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2. 연구 목적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으로 진로를 결정하던 청각장애 학생들이 장애인 특례입학 제도에 힘입어 이제는 취업보다는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에 따라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 상급학교에 진학한 청각장애 학생들은 강의시간이나 대학생활에서 의사소통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연구는 통합교육 장면에서 건청 학생들은 청각장애인과 수화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은 청각장애인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둘째, 대학생들은 청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수화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셋째, 대학생들이 통합교육 장면에서 청각장애 학생과 더불어 생활하기 위한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본다.

3. 연구의 제한점

대학생의 수화인식도 조사를 위한 이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청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수화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그 범위를 수화로 한정하며, 청각장애 학생들의 통합교육 장면에서의 모든 내용을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조사 범위를 서울시내 대학에 재학하는 건청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들의 인식으로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청각장애 학생들의 의견은 다루지 않고 건청 학생들의 의견만으로 한정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도구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건청 학생들은 청각장애인과 수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관련 문헌 및 참고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은 서울시내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Y대학교 학생 70명과 2차 조사에 참여한 D대학교, E대학교, H대학교, K대학교, S대학교, Y대학교에 재학중인 21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하였으며, 조사 도구로는 반구조화된 조사지를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2. 연구 절차

이 연구를 위하여 구성된 조사지는 서울시내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청각장애인과 수화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Y대학교 70명의 학생에게 청각장애인과 수화에 대한 생각을 기술하게 하였다. 이를 토대로 1차 면담 내용을 선정하였으며, 청각장애 및 수화 관련 전문가와 함께 면담내용에 대하여 2차 협의를 거쳐 면담내용

을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들과 협의를 거친 후 면담 내용을 최종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면담지를 Y대학교 학생 70명에게 사전 교육을 시킨 뒤 각자 3명의 학생들에게 심층 면담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들은 서울시내에 재학중인 210명의 대학생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심층면담한 내용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도출하였다.

3. 자료 처리

210명에 대한 조사 내용을 분석하여 중복되거나 유사한 답변 자료는 관련되는 문항 하나로 압축하여 처리하였으며, 이 연구와 관련없는 답변 내용과 불성실한 조사지 30매를 제외한 180매의 조사지를 분석하였다.

조사에 응한 대학생들은 청각장애인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청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수화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각 항목별로 면담 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대학생들이 청각장애 학생들과 어떠한 의사소통 수단을 활용하여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Ⅲ. 결 과

1. 대학생의 수화에 대한 인식도 분석

1) 수화를 언제부터 알게 되었으며, 수화를 배운 적이 있습니까?

수화를 배운 적이 있거나 알게 된 시기를 묻는 질문에 수화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또한 개인적 관심이 없어서 수화를 배우지도 알고 있지도 않았다는 대답이 35%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사이트와 TV 뉴스를 통해서 수화를 접한 학생이 25%,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수화를 알게 되었다는 학생이 23.3%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학생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수화를 접한 것이 아니라 대중매체에 의해서 알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

문 항 내 용	n	%
① 중, 고등학교 때 수련회에서 수화를 배웠다.	10	6
② 교회에서 수화 찬양을 위하여 배우고 연습하고 발표하였다.	8	4
③ 초등학교 수업시간에 담임선생님이 수화에 대하여 알려 주시면서 청각장애인에 대하여 이해를 시켜 주셨다.	4	2
④ 지금까지 전혀 수화에 대하여 몰랐지만 학교 교양과목으로 수화를 수강하면서 이해하게 되었다.	3	1
⑤ 대학교 동아리 행사 때 수화를 본 적이 있다.	5	2
⑥ 드라마와 영화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42	2
⑦ 인터넷 사이트와 TV뉴스에서 수화 통역하는 것을 보고 알았다.	45	25
⑧ 배우거나 본 적이 없다.	63	35
계	180	100

2) 수화는 만국 공통어라고 생각합니까?

수화는 어느 나라에서나 사용할 수 있어서 배워두면 외국에 갔을 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이 45%로 의외로 많았으며, 수화가 각 나라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완전히 같을 수는 없지만 일정부분 같을 수 있을 것이라는 학생도 18%나 되었으며, 모르겠다는 의견이 37%나 되어 수화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문 항 내 용	n	%
① 수화는 각 나라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수화는 어느 나라에서나 사용할 수 있어서 배워두면 외국에 갔을 때 좋을 것 같다.	81	45
② 완전히 같을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같은 것이 있다고 본다.	32	18
③ 무응답(모르겠다)	67	37
계	180	100

3) 수화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알려져 있다고 생각합니까?

면담에 응한 대학생들은 자신들도 지금까지 수화나 청각장애인에 대하여 관심도 없었다는 학생이 67%나 되었으며, 현실적으로 특정한 사람들만 청각장애나 수화에 대하여 알고 있을 뿐 사회 전반에 전파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표 3〉

문항 내용	n	%
①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모두 필요한 사람들만이 사용하는 언어이고 그와 관계없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20	11
②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만 신경 쓰기 때문에 수화에는 거의 관심이 없을 것이다.	120	67
③ 무응답 (모르겠다)	40	22
계	180	100

4) 수화를 배운 느낌은 어떠합니까?

수화에 관심을 가지거나 우연한 기회에 기초 수화를 배운 21명의 학생들은 어렵다는 반응이 57%로 나타났다. 수화를 통하여 청각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재미있다고 한 학생도 19%나 되었다.

〈표 4〉

문항 내용	n	%
① 수화가 굉장히 어려웠다. 혼자서 배우기에는 너무 힘들다.	12	57
② 수화 노래로 배운 것은 단어가 지금도 조금씩 생각이 나지만 문장이나 단어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 청각장애인을 만난다면 지금은 대화가 어려울 것 같다.	3	14
③ 청각장애인과 대화를 하려는 의도보다 재미로 수화를 배웠으며, 그냥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4	19
④ 청각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다.	2	10
계	21	100

5) 수화를 배우려는 이유는 무엇이며, 배울 의향은 있습니까?

수화를 배우려는 3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응답이 52%로 가장 많았으며, 배울 계획은 있으나 사용할 기회가 있을지 걱정이라는 응답자가 16%, 13%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 수화를 배울 여건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배울 의향이 별로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

〈표 5〉

문항 내용	n	%
① 일차적으로 호기심 때문이며, 배울 생각이 있지만 접할 기회가 없어서 하지 않는다.	10	32
② 친구들에게 하나씩 수화를 배우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정식으로 배우고 싶다.	4	13
③ 걸음으로 보기에 손동작이 너무 아름다워서 배워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	6	19
④ 배울 계획은 있지만 하나의 언어인데 어려울 것 같다. 또한 배운 뒤에도 활용할 수 있을지 걱정이며 시간만 허비하고 이후 잊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망설여진다.	8	26
⑤ 수화를 배워서 내 삶의 여유가 있을 때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하겠다.	3	10
계	31	100

6) 수화를 배우지 않았거나 배울 의향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화를 배울 계획이 없는 학생 1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청각장애인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수화를 배워도 사용할 곳이 마땅치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37%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중요한 것도 있는데 굳이 수화를 배울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도 22%로 나타났다.

〈표 6〉

문항 내용	n	%
① 수화를 배울 기회도 없을뿐더러 수화가 무엇이고 청각장애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도 없다.	47	37
② 수화를 배울 계획이 없다. 그 이유는 내게 아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배울 가치가 없다.	27	21
③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배울 곳을 알면 가서 배우겠는데 어디서 어떻게 배우는지도 모르겠다.	10	8
④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는데 굳이 수화를 배울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다른데 투자하겠다.	28	22
⑤ 필답으로 하면 되고 수화통역사의 도움을 받으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을 것 같다.	16	13
계	128	100

7) 청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수화를 직접 본 적이 있습니까?

청각장애인을 보거나 대화해 본 적이 없다는 학생이 81%로 대부분이었으며, 그 중에서 적은 수가 청각장애인들이 수화하는 것을 보았으나 대화하는 장면을 정면으로 보기가 미안하여 자세히 보질 못하였다는 의견이 많았다.

〈표 7〉

문항 내용	n	%
① 작은소리를 내면서 수화하는 것이 신기하였지만 보다가 눈이 마주쳐서 피했다. 이런 행동에 대해서 그들에게 미안한 생각을 하게 된다.	14	8
② 음악에 맞춘 수화의 율동이 마치 물 흐르는 것 같아 아름다웠다.	4	2
③ 사람들의 뜻이 손으로 표현되어 전달된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의사소통을 한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10	6
④ 보았는데 달리 느낌은 없고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6	3
⑤ 무응답(보지 못하였다.)	146	81
계	180	100

8) 수화는 누가 사용하는 언어입니까?

수화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으나, 청각장애인과 그 가족이라는 의견이 53%로 나타났으며, 관련 단체 종사자가 32%로 나타나 수화는 청각장애인들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만이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8〉

문항 내용	n	%
① 청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이 있는가정	95	53
② 청각장애인 관련 단체 종사자, 수화에 관심이 있는사람	58	32
③ 무응답(모르겠다)	27	15
계	180	100

9) 수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손짓 언어로 신체에 문제가 있어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언어로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청각장애인이 하는 율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이 21%로 나타났다. 학생

들은 수화를 언어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손짓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문항내용	n	%
① 아름다운 손짓이다.	31	17
② 신체적 문제로 인해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언어	25	14
③ 손이나 몸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언어라고 생각한다.	17	9
④ 몸동작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청각장애인들이 사용하기 쉽도록 해 놓은 것이다.	38	21
⑤ 수화는 언어가 아니라 청각장애인이 하는 울동에 지나지 않는다.	21	12
⑥ 무응답(모르겠다)	48	27
계	180	100

10) 수화를 배운 후에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수화를 배운 경험이 있는 2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수화를 배웠지만 청각장애인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한 번도 활용하지 못하였다는 학생이 76%로 수화를 배워도 활용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각장애인을 만난다고 해도 수화로 대화할 용기가 나지 않다는 의견이 소수 나타났다.

〈표 10〉

문항내용	n	%
① 수화를 배웠지만 청각장애인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한 번도 활용하지 못하였다.	16	76
② 친구들과 놀러 갔을 때 다른 친구들은 말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으나 수화를 배운 나는 필담과 수화 그리고 몸 동작으로 대화를 하였다. 청각장애인에 대하여 이해를 하였기에 배우지 않은 사람보다 그들에게 다가가는데 수월하였다.	5	24
계	21	100

11) 청각장애인을 보면 건청인과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 합니까?

청각장애인을 만난 적이 없거나 모른다는 의견이 34%로 나타났으며, 청각장애인을 보면 무

서운 생각이 든다는 의견 또한 18%로 나타났다.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들이라는 의견이 12%, 삶이 괴로울 것이라는 의견이 11%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청각장애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할 것을 알 수 있다. 함께 살아가야 할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표 11〉

문항 내용	n	%
① 수화를 사용하는 것이 힘겨워 보인다. 사회 차별 속에서 삶이 괴로울 것이다.	20	11
② 평소에는 불쌍하고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만나면 피하게 되고 꺼려지게 된다.	17	9
③ 그냥 한 번 쳐다보고 지나간다. 일반인과는 달리 한 번 더 보게된다.	7	4
④ 청각장애인을 보면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선뜻 대하기가 어렵다.	32	18
⑤ 청각장애인은 보호받아야 하며,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들 같아 보인다.	21	12
⑥ 청각장애인들은 장애로 인하여 지나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장애 때문에 대인관계도 소극적일 것이다.	11	6
⑦ 수화를 하는 청각장애인을 보면 실례가 될 것 같아 자세히 보지 못하고 힐끔 쳐다보기만 하였다.	11	6
⑧ 청각장애인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에 대한 생각이나 관심도 전혀 없다.	39	22
⑨ 무응답(모르겠다)	22	12
계	180	100

12) 기회가 된다면 청각장애인과 이성적으로 사귀어 볼 생각이 있습니까?

청각장애인과 이성적으로 사귀어 볼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무응답이 36%로 선뜻 사귀어 볼 생각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기회가 되면 사귀어 보고 싶다는 학생이 55%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학생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다는 반면 남학생들은 호기심으로 사귀어 보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교재를 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인다.

〈표 12〉

문항 내용	n	%
① 청각장애인과 만날 기회가 있다면 사귀어 볼 생각이 있다.	51	28

② 당연히 사귀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 그러나 언어 때문에 불편할 것 같다. 서로 노력하면 좋은 사귀이 될 것 같고 대화를 하기위해서 수화를 열심히 배울것이다.	48	27
③ 청각장애인들이 우리를 좋아할지 그것부터 걱정이 된다.	16	9
④ 무응답(모르겠다)	65	36
계	180	100

13) 수화 방송을 시청한 적이 있습니까?

뉴스에서 수화통역 장면을 보았으나 통역에는 관심이 없고 화면만 본다는 의견이 43%나 되었으며, 특히 수화통역자도 청각장애인이라고 생각하는 응답도 21%나 되었다. 또한 무응답자가 36%로 본적은 있으나 무관심하여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13〉

문 항 내 용	n	%
① TV뉴스에서 수화통역을 하는 것을 보았다. 통역하는 사람이 청각장애인일 것 이라고 생각한다.	37	21
② 뉴스에서 본 적은 있었으나 그것은 보지 않고 화면만 보았다.	78	43
③ 무응답	65	36
계	180	100

14) 수화 통역 방송이 시청에 방해가 되지 않는습니까?

수화 통역이 시청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수화통역 서비스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77%로 나타났다. 또한 방해가 된다는 의견도 12%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결과는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로 보여진다.

〈표 14〉

문 항 내 용	n	%
① 방해가 되지 않는다. 더욱 더 확대하여 청각장애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하였으면 좋 겠다.(이유: 장애인이 우리보다 모자란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 보호를 받아야 한다.)	96	53
②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운동이나 여타 프로에서 수화를 통역한다면 방해		

는 될 것이지만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라면 확대해도 괜찮다.	44	44
③ 불편할 때가 있다. 그러나 다른 프로를 보던가 무시하고 시청한다.	21	21
④ 무응답(모르겠다)	19	19
계	180	180

15) 수화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화 보급을 위해서는 방송에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청각장애인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 주기 위해서 방송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51%로 나타났으며, 공공기관에서 수화 강좌를 개설하여 시민들의 자연스런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25%, 대학에서 수화 강좌를 개설하여 수강하게 한다는 의견이 18%로 나타나 수화 보급을 위하여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문 항 내 용	n	%
①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 수화를 수강하게 한다.	32	18
② 청각장애인이 좀 더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방송에서 많은 역할을 하여야 하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방송을 늘려야 한다.	93	51
③ 장애인과 함께 사는 사회라면 배워 둘 필요성이 있으므로 방송이나 동사무소 구청 등에서 수화강좌를 개설하여 보급하는 것이 좋다.	45	25
④ 무응답(모르겠다)	10	6
계	180	100

16) 귀 학교에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지원서비스가 잘 되어 있다고 봅니까?

각급 학교에서 장애 학생을 위한 지원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지원은 더욱 미미하다는 의견이 99%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 특례입학 제도로 진학률은 높아졌으나 대학에서의 지원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6〉

문항내용	n	%
①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복지 지원은 거의 없다고 본다.	26	14
② 지체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본적이 있으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본 적이 없고 통역이나 속기를 지원하는 것도 본 적이 없다.	59	33
③ 우리 학교에 청각장애인이 재학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질문을 받기 전에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생각도 해 본 적이 없다.	18	10
④ 청각장애인은 밖으로 드러나는 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줄 필요가 있다.	57	32
⑤ 무응답(모르겠다)	20	11
계	180	100

17) 청각장애 학생과 함께 강의를 듣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통합교육 장면에서 청각장애 학생과 함께 강의를 듣는다면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의견이 39%, 피할 것 같다는 의견이 19%, 모르겠다는 의견이 30%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청각장애 학생을 도와주겠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표 17〉

문항내용	n	%
① 청각장애 학생이 강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71	39
② 대화가 통하지 않아 피할 것 같다.	34	19
③ 청각장애 학생과 서로 의지하면서 생활하겠다.	21	12
④ 무응답(모르겠다)	54	30
계	180	100

18) 장애인 특례입학제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애인 특례입학에 대하여 좋은 제도라는 의견이 71%, 입학 후 수학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과 취업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의견도 24%로 나타났다.

〈표 18〉

문항내용	n	%
① 장애인을 위하여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127	71
② 입학 후 수업을 따라가지 못할텐데 걱정이 된다.	24	13
③ 건청 학생들도 취업이 어려운데 졸업 후 장애인이 어떻게 취업을 할 지 걱정이 된다.	19	11
④ 무응답(모르겠다)	10	6
계	180	100

19) 청각장애 학생이 강의 시간에 도움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통합교육 장면에서 청각장애 학생이 도움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도와주겠다고 하였으며(66%), 내 일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26%나 되었다. 이는 부정적인 의견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9〉

문항내용	n	%
①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119	66
② 내 일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못할 것 같다.	46	26
③ 무응답(모르겠다)	15	8
계	180	100

기타 의견으로는 청각장애의 발생 요인을 유전 또는 사고나 약물 복용으로 알고 있었고, 청각 장애인은 말은 듣지만 하지 못한다는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방송에서 잘못된 인물 설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버스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안내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청각장애인을 병어리, 귀머거리, 말 못하는 사람으로 장애인을 비하하는 명칭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각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가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대학생의 수화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시내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은 수화나 청각장애인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으며, 또한 개인적 관심이 없어서 수화를 배우지도 않았다. 또한 알고 있지도 않다는 학생이 많았으며, 인터넷 사이트와 TV 뉴스를 통해서 수화를 접하였거나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수화를 알게 되었다는 학생들이 많았다.

둘째, 청각장애인을 보거나 대화해 본적이 거의 없었으며, 수화는 청각장애인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대학생들은 수화를 손짓 언어로 신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언어로 생각하고 있었다.

셋째, 청각장애인을 생각하면 무서운 생각이 든다는 의견과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들이라는 의견으로 청각장애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살아가야 할 장애인들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넷째, 수화 통역이 시청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수화통역 서비스를 확대하여야 하며, 수화보급과 청각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방송에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에서 수화 강좌를 개설하여 시민들의 자연스런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다섯째, 대학교에서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지원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합교육 장면에서 청각장애 학생과 함께 강의를 듣는다면 도와주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장애인 특례입학은 좋은 제도이며, 좀 더 많은 장애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여섯째, 청각장애의 발생 요인을 유전 또는 사고나 약물 복용으로 알고 있으며, 청각장애인을 병어리, 귀머거리, 말 못하는 사람으로 장애인을 비하하는 명칭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남아있어 적극적인 해결책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청각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장애인관의 수정과 의식 개혁을 위해서 청각장애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뉴스나 기타 프로그램에서 수화통역 방송을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수화 보급과 함께 청각장애 관련 내용을 방송과 신문지상을 통하여 홍보하며, 특히 수화는 배우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청각장애인과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첫 걸음이라는 사실을 홍보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통합교육 장면에서 청각장애 학생들이 불편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통하여 청각장애 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 김경진 (2001). 청각장애 학생의 언어지도와 수화교육의 탐색.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구 제2집. 국립특수교육원.
- 김경진 외 (2002). 청각장애 학생의 국어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기초 연구. 국립특수교육원.
- 김헬레나(2002).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광자 (1996). 일반학급에 통합한 청각장애아동의 언어능력과 적응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석동일 (1989). 한국수화의 언어학적 분석. 미간행 박사학위청구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이규식 외 (1998). 청각장애아 언어지도와 치료방법. 대구대학교 출판부.
- 이철수, 김준기(2000). 언어와 언어학의 이해. 한국문화사.
- 정정진 (2003).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평가편람 및 기준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 2002-특-33.
- 윤점룡, 김주영(2002).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 실행 이후 학내 지원체계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최성규 (1999). 청각장애아 언어 교육 방법론에 대한 패러다임 이동: 이중문화와 이중언어의 타당성. 특수교육학 연구, 33권 2호, 211-143.
- Lang, G., & Berberich, C.(1995). *All children are special : creating an inclusive classroom*. York, Maine : Stenhouse.
- Lytle, R. R., & Rovins, M. (1997). Replacing myths Deaf education: A paradigm shift from How to teach to What to teach. *American Annals of the Deaf*, vol 142-1, 7-15.
- Putman, J.W. (1998). The movemont toward teaching and learning in inclusive classrooms In J. W. putman (ED). *cooperative learning and strategies for inclusion* Baltimore. MA: Paul H. Brookes.
- Stone, R. (1994). Mainstreaming and Inclusion: A Deaf perspective. Gallaudet Researco Institute Occasional paper 94-2. Gallaudet University, Washington, D. C.
- Strong, M. (1995). A review of bilingual/bicultural programs for Deaf children in North America. *American Annals of the Deaf*, vol 140-2, 84-94
- Thomas, G., Waker, D., & Webb, J (1998). *The making of the inclusive school* London : Routledge

(Abstract)

Study on Consciousness of University Students on Sign Language

Kim, Kyung-Jin* · Heo, il**

This study aims to identify how deeply university students understand sign language, a means of communication for the hearing impaired and to figure out the ways to support the university life of the hearing impaired students. For these purposes, this study surveyed consciousness of university students on sign language through intensive interviews with 210 university students who are studying in colleges in the downtown of Seoul. Most university students didn't fully understand the hearing impaired. In particular, they consider the sign language as beautiful language but lack overall interests on the sign language. This study also found that while the students intend to learn or will learn the sign language in future, they think the sign language is not useful because they don't have any opportunity to use it as well as it is difficult to meet the hearing impaired. Additionally, they considered the hearing impaired as people that are pitiful and difficult to approach. Then, they emphasized the distribution of sign language and active promotion through mass media to understand and communicate together with the hearing impaired. Meanwhile, it is required to support interpretation or shorthand writing of sign language for university life and learning of the hearing impaired.

*Korea National College of Rehabilitation & Welfare

**Korea National College of Rehabilitation & Welfare